

2023년 4월 23일
금문교회 주일예배 GGPC Sunday Worship Service
조은석 목사 Rev. Eun Suk Cho, Pastor

목회기도 Pastoral Prayer

- 1 Make a joyful noise to the Lord, all the earth!
- 2 Serve the Lord with gladness!
Come into his presence with singing!
- 3 Know that the Lord, he is God!
It is he who made us, and we are his;[a]
we are his people, and the sheep of his pasture.
- 4 Enter his gates with thanksgiving,
and his courts with praise!
Give thanks to him; bless his name!
- 5 For the Lord is good;
his steadfast love endures forever,
and his faithfulness to all generations.

시편 Psalm 100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들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사흘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사망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명을 주셨습니다. 다시 오실 약속을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선교사명을 감당하며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송을 언제나 드리게 하옵소서. 기도와 찬송 생활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전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와 하나님께 찬송 Praying and Singing Hymns to God

사도행전 Acts 16:19-25

19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가.

But when her owners saw that their hope of gain was gone, they seized Paul and Silas and dragged them into the marketplace before the rulers.

20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And when they had brought them to the magistrates, they said, “These men are Jews, and they are disturbing our city.

21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They advocate customs that are not lawful for us as Romans to accept or practice.”

22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The crowd joined in attacking them, and the magistrates tore the garments off them and gave orders to beat them with rods.

23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튼튼히 지키라!” 하니

And when they had inflicted many blows upon them, they threw them into prison, ordering the jailer to keep them safely.

24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꼬에 든든히 채웠더니, Having received this order, he put them into the inner prison and fastened their feet in the stocks.

25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About midnight Paul and Silas were praying and singing hymns to God, and the prisoners were listening to them.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고발 당했습니다. 옷이 찢겼고,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준 때문이었습니다. 억울한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기도와 찬송을 쉬지 않았습니다. 한밤중까지 기도했고 찬송했습니다. 함께 갇힌 죄수들이 기도소리를 듣고 찬송소리를 들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깊은 곳에서도 기도와 찬송을 쉬지 않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령충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핍박을 당한다면 거기는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전파 하는 길에 환난과 핍박이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베풀어 귀신이 물러가고 병이 나아도, 돌아오는 것은 멸시와 천대입니다.

그렇지만 기도와 찬송을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온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기도와 찬송을 그치지 않습니다. 기도와 찬송이 그치면 영적 싸움에서 지고 마는 것입니다.

찬송가 485장입니다. 어두운 그날 닥쳐도 찬송을 쉬지 마세. 금거문고를 타면서 나 주를 찬양하리. 요단강 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감옥에 갇힌다면 그것은 어두운 그 날입니다. 거기서도 찬송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어두운 그 날 닥쳐도 찬송을 쉬지 마세.

금거문고를 타면서 나 주를 찬양하리

Should coming days be dark and cold. We will not yield to sorrow. For hope will sing with courage bold, There' s glory on the morrow.

찬송가 485장 3절

금거문고를 타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은 곡조 붙은 기도입니다. 기도와 찬송은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Rejoice always. Pray without ceasing.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This is the will of God in Christ Jesus.

데살로니가전서 1 Thessalonians 5:16-18

19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 갔다가.

But when her owners saw that their hope of gain was gone, they seized Paul and Silas and dragged them into the marketplace before the rulers.

주인들은 화가 났습니다. 그들의 여종이 귀신에 들려 점을 쳤는데, 그게 경제효과가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귀신이 쫓겨나가니, 장사가 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바울과 실라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장터로 끌고가 관리들에게 넘겼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가 가장 큼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 대신 물질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교회를 핍박합니다.

개척교회들이 건물을 빌어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교회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업건물을 렌트하려는데, 건물주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 당국이 “세금”을 내지 않는 교회를 별로 반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물주는 불이익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상업건물을 렌트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는 대신 세상의 성공전략을 알려준다면 사람들이 모일 것입니다. 부자 되는 길을 제시한다고 해도. 그러나 교회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세상에서 멸시 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대개 우상숭배는 물질주의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상숭배를 배척하는 교회를 세상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비록 귀신에게 붙들려 삶이 비참한 이 여종을 해방시켜 자유인이 되게 했어도, 그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그 여자의 부모형제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를 종으로 소유한 주인들은 대단히 불쾌했습니다. 어쩌면 점을 쳐서 잘 된다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도 별로 반가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것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를 살렸는데, 그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니 말입니다.

20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And when they had brought them to the magistrates, they said, “These men are Jews, and they are disturbing our city.

주인들은 이미 지역사회 유지들입니다. 돈이 있어서 행세할 수 있습니다. 상관들을 찾아가 말합니다. 그들의 말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적어도 귀신 들렸던 여종 출신 여자나, 더욱이 이방에서 온 유대인 바울과 실라 선교팀과 비교하면!

그들의 주장입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합니다!”

사실은 구원과 자유를 준 것인데, 무슨 전쟁을 한 것처럼 호도합니다. 사실은 기쁜 소식을 전파했는데, 거짓된 나쁜 소식으로 도시를 혼란에 빠뜨린 것처럼 주장합니다.

21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They advocate customs that are not lawful for us as Romans to accept or practice.”

“로마 사람인 우리가.” 문화적 우월성이 드러납니다.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선교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문화와 복음의 충돌입니다.

단지 문화의 충돌이라기보다는 “진리”와 “거짓”의 충돌, “복음”과 “사술”의 충돌입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사탄의 충돌입니다.

22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The crowd joined in attacking them, and the magistrates tore the garments off them and gave orders to beat them with rods.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주인들만 아니라 저잣거리의 무리가 소동했습니다. 우선 지역사회의 유지들인 그 주인들에게 선동된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사회 자체가 복음에 대하여 호의적일 수가 없습니다.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예수님 때 빌라도가 십자가에 내어준 일이 기억납니다. 복음을 대하는 세상의 법정은 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을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When one of you has a grievance against another, does he dare go to law before the unrighteous instead of the saints?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6:1

23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And when they had inflicted many blows upon them, they threw them into prison, ordering the jailer to keep them safely.

바울과 실라가 많이 맞았습니다. 매는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께서 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매”라는 것을 말로만 들었지, 맞아보지 않고는 그게 뭔지 몰라.

매는 육신의 고통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인간 가장 깊은 비참에 이릅니다. 맞다보면 자존감이 한없이 땅에 떨어집니다. 육신의 고통에서 회복되는 속도보다 마음의 상처에서 벗어나기가 훨씬 오래 걸리고, 대단히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습니다. 세상살이 하면서 “감옥”이란 누구도 경험하고 싶지 않은 고통입니다. 사람은 넓은 세상에 살 때 평안이 있습니다. 좁은 곳에서는 “극도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보십시오. 바울이 자기 사도직을 변호하면서 쓴 고린도후서의 한 토막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Are they servants of Christ? I am a better one—I am talking like a madman—with far greater labors, far more imprisonments, with countless beatings, and often near death.
고린도후서 2 Corinthians 11:23

바울은 이번 일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닙니다. 제1차 선교여행 때 이미 돌로 맞아 죽을

뻘했습니다. 그 이전 다메섹에서는 성을 지키는 군인들을 피하여 광주리를 타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은 “트라우마” 를 형성합니다.

이런 일들이 왜 우리에게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도록.

간수에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튼튼히 지키라!” 마치 베드로가 예루살렘 옥에 갇혔을 때 같습니다.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Peter was sleeping between two soldiers, bound with two chains.

사도행전 Acts 12:6b

얼마나 베드로가 철저히 묶이고 감시를 받는가 보십시오. 그는 두 군인들이 함께 누웠고,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When they had passed the first and the second guard, they came to the iron gate leading into the city.

Acts 12:10a

얼마나 베드로가 깊은 감옥에 갇혔는지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 깊은 안쪽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얼마나 심각한 죄인으로 취급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24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꼬에 든튼히 채웠더니,
Having received this order, he put them into the inner prison and fastened their feet in the stocks.

간수(jailer)는 명령 받은 그대로 실시했습니다.

25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About midnight Paul and Silas were praying and singing hymns to God, and the prisoners were listening to them.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왜 하필 한밤중입니까?

어쩌면 심하게 맞아 쓰러졌다가, 겨우 눈을 뜨니, 그것이 한밤중이 되었을 때였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불들려 감옥에 갇힌 그 시각부터 “내내” 기도하고 찬송하던 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Faith of our fathers! Living still in spite of sungeon, fire and sword. O how our hearts beat high with joy. Whenever we hear God’ s glorious Word. Faith of our fathers, holy faith! We will be true to Thee till death. Amen.

찬송가 336장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환난과 핍박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님의 “약속” 이 있습니다. 천국소망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명령” 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Rejoice in all circumstances!
Pray without ceasing!

명령은, 우리가 할 수 없을 때도 유효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할 때 그 모든 명령이 그대로 “하늘의 도움” 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I lift up my eyes to the hills. From where does my help come? My help comes from the Lord, who made heaven and earth.
시편 Psalm 121:1-2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He gives us daily bread.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건지십니다. He does not lead us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난 중이라도 기도와 하나님 찬송은 쉬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위기에 닥쳤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Moreover, as for me, far it be from me that I should sin against the Lord by ceasing to pray for you, and I will instruct you in the good and the right way.
사무엘상 1 Samuel 12:23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의 종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세상을 위하여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백성, 모든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부르심 받은 자는 기도를 계속 해야 합니다.

정리: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들은 귀신 들려 죽을 고생하는 여종 하나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그 여종을 살려냈습니다. 구원하였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 복음사역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바울과 실라는 선교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와 하나님 찬양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염려할 것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매를 맞았어도, 아무리 깊은 감옥에 갇혔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어두운 그 날 닥쳐도 찬송을 쉬지 마세.
금거문고를 타면서 나 주를 찬양하리
Should coming days be dark and cold. We will not yield to sorrow. For hope will
sing with courage bold, There' s glory on the morrow.
찬송가 485장 3절

이 세상의 어두운 그 날이 결국은 닥쳐올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언제나 “예정” 된 것이며, “예고”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기도합시다. 지금부터 찬송을 드립시다. 쉬지말고. 그리하여 그 날이 닥쳐왔을 때도, 평소 하던 그대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배인간은 예배가 사명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는 예배로써 어둠을 뚫고,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함으로 기도하십니다.

기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 하다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옥 안에서도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찬송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죄수들이 다 들도록. 오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사, 기도와 찬송이 쉬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